

## 양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선임연구원

2002년 출판계의 화제는 ‘출판및인쇄진흥법’ 제정, MBC-TV ‘1노킴표’ 프로그램 추천도서의 베스트셀러 독식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매스컴셀러’ 현상, 월드컵 기간 중의 종로서적 부도, 권위와 전통의 서평지 <출판저널> 휴간, 교양·오락·실용·아동 등 단행본 출판 전반의 매출 향상 등으로 집약된다.

정부와 매스컴의 출판·독서 인프라 조성 노력, 인터넷서점의 지속 성장 및 선두업체간 합병, 대형서점 체인의 증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려는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출판산업 질서가 구축되어 가는 데 큰 진전이 있었던 한 해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2003년 우리 출판계에는 어떤 변화가 예견되는가. 사안별로 간략히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파주출판단지(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PAJU Book City)’ 탄생을 들 수 있다. 지난 1989년 발기인대회 이래의 대역사가 오는 10월로 예정된 ‘책의 도시 탄생 선포식’ 및 ‘어린이책 페스티벌’을 통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 초유의 출판산업 콤플렉스인 파주단지에는 지난 8월에 이미 보진재(4,300평)가 첫 입주하여 인쇄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출판사·인쇄사·유통회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업종 총 500여사가 집결함으로써 출판 생산물류비 30% 절감은 물론, 문화·생태·관광 거점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 설립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동아시아 및 세계 출판을 연결하는 출판정보 허브기지로서의 역할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출협(대한출판문화협회)은 2003년 신규사업으로 (가칭)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 건립 및 시범운영, (가칭) ‘한국출판역사박물관’ 건립, ‘한국출판대상’ 제정, ‘아름다운 책 디자인상’ 제정 등을 입안하여 추진중이다. 한국출판유통정보센터는 2001년도부터 정부 지원하에 추진해 왔던 출판유통 정보화 사업의 결산이자, 해방 이래 우리 출판계 최대의 과제이던 고비용저효율 유통구조를 일신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된다. 아울러, 1987년부터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구 한국출판금고; 2002년 12월까지)에서 발행해 오던 출판·서평 전문지 <출판저널>의 발행 주체가 출협으로 이관되어 2월부터 속간된다.

### 전자책 지속적 성장예견

2003년에는 전자책(온라인 e-book)의 지속적인 성장도 예견된다. 특히 전자책 인증 시스템이 전격 시행될 예정인 바, 인증·납본(도서관 제출)·유통·판매·부가세 면세 등의 행정체계 및 상용 서비스와 연동됨으로써 전자책산업 발전의 인프라가 상당 부분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간 정책·예산 측면에서의 정부 주도 및 B2B(도서관·학교 등 기관판매)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차츰 B2C(개인독자 판매) 시장으로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도서정가제(도서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행방이다. 지난해 여름에 국회 및 정부 의결을 거쳐, 기존 법(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을 전면 대체하며 제정된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도 가장 주목받았던 것이 도서정가제의 의무법제화였다.

발행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신간에 대해 일반서점은 정가판매를, 인터넷서점은 10%까지의 제한적 할인을 규정한 법규가 오는 2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보다 앞서,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의 시한이 2002년 12월 까지로 되어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뜨거웠다.

학습참고서, 사전 등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출판물 전체에 적용하기를 바라는 출판계와의 이견은 쉽게 정리될 사안은 아니다. 오는 2005년까지 도서정가제를 한시

적으로 법제화한 출판및인쇄진흥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중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행정규제는 앞으로도 삼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신경 쓰이는 것은, 2월 말 이후 법 시행 때부터 10% 제한 할인을 규정이 마일리지 할인이나 구간의 대폭 할인 등 다양한 편법에 의해 사문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매스컴의 영향력은 출판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책 소개 프로그램 증가, 증면 경쟁에 따른 신문 북색션의 확대는 독서하는 사회풍토 조성 및 독서 인프라 조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 위주의 '편식 독서'나 독서정보 내용의 편중이 심화됨으로써 순기능의 확산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체적인 미디어 이용 능력(media literacy), 비판적인 정보 선택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교와 사회교육이 출판계의 새로운 숙제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을 통한 독서 및 정보선택 능력을 국가적인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정보사회에서 독서의 중요성 인식과 독서사회화도 한층 진전될 것이다.

### 문고분야 신장될 듯

2003년의 출판 트렌드는 마음을 다스리고 위안을 주는 감성적 에세이, 대중적인 코드의 인문사회 교양서, 시각성이 강조된 산뜻한 이미지와 소구력 있는 텍스트가 결합된 책, 인물 평전 등이 갈수록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 시사·실용·학습·수험 등 생존 필독서들도 보다 전문화·차별화되어 독자층의 눈을 끌게 될 것이다. 잡지와 문고 등 아직 우리 출판시장에서 빈약한 분야들도 눈에 띄게 신장세가 늘어나고 번역서의 강세는 조금씩 완만해질 것어서, 전체적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진화로 변환되는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것이 중장기 전망이다.

지식 정보사회를 맞아 출판계는 우수한 전문 콘텐츠의 생산 능력과 디지털화, 유통체계 정비, 언어 장벽조차 허물어지는 세계 단일시장에서의 글로벌화 등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책의 내용과 형식이 급변하는 가운데, 출판사는 출판 콘텐츠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출판 및 독서환경을 재구조화하는 데 적기를 맞고 있다. 2003년은 일본의 돛판인쇄가 주축이 된 전자종이(e-paper), 전자인크가 상용화될 예정이기도 하다. 우리 인쇄업계와 출판계도 세계적인 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 안으로는 공동 협력과 응전력을 키워야 한다. 책의 내용과 형식이 분리되지 않듯, 관련 업계가 한 몸이 되어야 상생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가 실현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